

제 목	제 3세대 백금착체 항암제 신약개발: SKI 2053R의 제 1상 임상연구
연구자	김노경, 신상구*, 방영주, 허대석, 김기협#, 김대기#, 조용백#
소 속	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및 약리학교실*, 선경인더스트리연구소#
내 용	<p>선경인더스트리 연구소에서 개발된 100 여종의 새로운 백금착체 항암제 중 그 동안의 전임상연구를 통해 항암효과가 우수하고 안정성이 확인된 항암제인 SKI 2053R의 인체내 최대내약용량을 결정하고 부작용 및 항암효과를 평가하고 약제의 인체내 약동학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종 악성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 1상 임상연구를 시행하였다.</p> <p>약제의 투여는 500ml의 5% 포도당용액에 용해하여 1시간에 걸쳐 정주하였으며 병의 악화나 심한 독성이 없으면 치료를 매 4주마다 반복하였다.</p> <p>SKI 2053R의 초기용량은 생쥐에서의 LD<sub>10</sub>의 1/10에 해당하는 40 mg/m<sup>2</sup>로 하였고, 용량의 단계별 증가는 modified Fibonacci법에 따랐다. 각 단계별로 3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여 WHO 기준상 3도 이상의 부작용이 2/6 이상에서 나타날 때의 용량을 최대내약용량으로 설정하였다.</p> <p>현재 3단계 용량까지 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SKI 2053R을 투여한 결과 경도의 오심 외에 특기할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고 아직 최대내약용량에 도달하지 못하였다.</p> <p>약제 투여후 96시간 동안 채집한 혈액 및 뇨 중 총 platinum 과 유리 platinum을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, 그 결과를 PCNONLIN package를 이용하여 2 compartmental model(wt: 1/Cp<sup>2</sup>)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 SKI 2053R의 혈중 농도의 변화는 명백한 biphasic 소실양상을 보여 2 compartmental model에 잘 부합되었고, 투여약제의 42-75% 가 96시간이내에 뇨중으로 배설되었다. 총 platinum의 초기 분포 반감기는 약 1시간이었고, 최종 반감기는 제 1단계용량(40mg/m<sup>2</sup>)에서 63.4 ± 3.1 시간, 제 2단계(80mg/m<sup>2</sup>)에서 91.1 ± 22.7 시간, 제3단계(130mg/m<sup>2</sup>)에서 103.4 ± 3.1시간이었으며, 평균 분포용적은 106.4 ± 23.4 L/Kg 이었다. 유리 platinum은 약 0.8 시간의 짧은 분포반감기에 이어 제1단계에서 5.2 ± 0.7시간 제2단계에서 5.8 ± 0.8시간, 제 3단계에서 13.9 ± 1.3시간의 최종 반감기를 보였으며, 분포용적은 평균 48.8 ± 14.5 L/Kg 이었다.</p> <p>결론적으로 새로이 개발된 백금착체 항암제인 SKI 2053R의 인체내 안정성이 확인되었고, 인체내 약동학적 특성은 cisplatin을 대조로 한 beagle dog 실험에서 예측되었던 바와 잘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. 앞으로 연구가 지속되면 최대내약용량과 항암효과가 규명될 것이다.</p>